

영어문장의 기초만 보려고 해도 정말 많은 용어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들을 처음부터 일일이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다ㅠ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문법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문법을 설명할 생각이다. 문장을 공부를 할 때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조금이나마 덜 어렵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He sings well.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는 노래를 잘 한다.'이다. 문장을 읽을 때는 적절하게 끊어 읽으면서 해석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도 끊어서 읽어보면 'He/ sings/ well.'로 끊어읽을 수 있고 해석은 '그는/ 노래를 부른다/잘'로 해석이 된다. 왜 끊어 읽었는지 궁금할 것 같다. 바로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위 문장에서 주어는 he, 동사는 sings가 된다.

●주어: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되어서 문장의 주체가 된다.

주어는 위 문장에서 '그는'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와 같이 보통 주어는 해석을 했을 때 끝 부분이 '은/는/이/가'로 끝난다. 주어는 웬지 느낌상 문장의 주인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한다'에서 주어인 he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문장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해석적으로도 이상하다. 'Sings well. 노래를 잘 한다.'을 보면 누가 노래를 잘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이처럼 he와 같은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기도 하지만, 주어가 없으니 말 그대로 누가 노래를 잘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Tom이 잘 부른다는 것인지, he가 잘 부른다는 것인지, 엘리스가 잘 부른다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어는 문장에서 주어는 해당 문장의 주체가 되고, 쉽게 비유를 하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동사: 사람이나 사물, 즉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서술해 주기 위해서 쓰이는 문장성분이다.

동사는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한다'에서 sing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sings는 특정 상황에서 동사원형인 sing뒤에 s를 붙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sing이라고 보면 된다. 동사 'sing'은 '(노래를) 부른다'로 해석이 되는데, 이 처럼 해석을 했을 때 끝 부분이 ~하다, ~다 등으로 끝나는 말들을 동사라고 부른다. 만약 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다면 이것 역시 문장은 성립할 수 없을뿐더러, 해석도 정말 이상하고 오만가지 추측을 다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he, well. 이 두 단어를 나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와 '잘'이 두 개의 단어만으로는 그가 무엇을 잘 한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h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동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 없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어는 사람, 사물 모두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한다. 즉,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말'이라고도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그러면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한다'에서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했는데, well이 무엇인지 모를 것 같다. well은 '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well은 문장의 성분에서 수식어로 분류할 수 있다. 수식어는 나중에 우리를 정말 골치아프게 하는 친구이다. 기본적으로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그가 노래를 '잘'부른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친절하게 꾸며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수식어가 너무 길어져서 우리의 머리를 힘들게 한다ㅠㅠ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수식어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주어와 동사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다.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그것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꼭 있어야 하고,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문장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가장 최소의 단위'라는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에 이 글을 시작할 때 문법용어를 처음부터 모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래 설명을 읽다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단 설명을 더 읽어보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문장의 가장 최소단위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문장의 전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글의 첫 부분에서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주어+동사 뒤에 붙는 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주어+동사 뒤에 붙는 덩어리는 크게 목적어와 보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목적어: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한다. He like pizza. 이 문장에서 pizza는 he가 좋아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것을 목적어라고 한다.

역시 문장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다.

▶I like **exercise**.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이 문장역시 끊어서 읽고 해석하면 'I/ like/ exercise.'로 끊어 읽을 수 있고, '나는/ 좋아하는다/ 운동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 하셨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지금 볼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다. 문장을 분석할 때는 우선 문장의 성분을 파악해야 하는데, 파란색 부분은 문장의 성분 중에서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를 지운다면 I like. 만 남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어+동사가 있는 문장이라서 문법적으로 성립할 것 같지만 100% 성립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쉬운 설명을 통해서 지금은 'Ilike.'라는 문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 하지만 문장이 성립한다고 해도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그것을 알고싶으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면 되고, 그 대답은 목적어가 붙어서 대답을 해주는데,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죠? 이처럼 목적어는 해석을 할 때 주로 '~을/~를'로 끝난다.

'운동을 좋아한다'처럼 목적어는 동사를 구체적으로 서술(또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목적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에 예문을 몇 개 적어두겠다. 끊어읽은 부분을 유심히 봐 주시길 바란다.

▶ Mom/ cooked/ breakfast/ (for us.) 엄마는/ 요리해주셨다/ 아침을/ (우리를 위해.)

▶ We/ should protect/ environment. 우리는/ 보호해야한다/ 환경을.

▶ My brother/ is using/ the computer. 내 동생은/ 사용중이다/ 컴퓨터를.

▶ The factory/ produce/ clothes. 그 공장은/ 생산한다/ 옷들을.

●보어: 문장에서 동사나 목적어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어는 문장에서 동사나 목적어 뒤에서 각각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이다. be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 등을 서술하거나 동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어의 쓰임이다. 그리고 보어는 앞서 설명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와 달리 딱 떨어지는 말로 끝나는 해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직접 해석하면서 보어의 역할과 쓰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①상태를 서술하는 등의 보충설명을 할 때

▶ He/ is/ angry. 그는 화가 나 있다.

→'그는 ~이다/화가 난 상태'. be동사 뒤에서 주어인 he(그)의 상태를 보어인 angry(화가 난)을 사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 The things/ made/ me/ angry. 그 상황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목적어인 me뒤에서 나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서술해주기 위해서 보어인 angry가 쓰여서 '그 일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주었다.

②동격을 나타낼 때

▶ He is Jake. 그는 jake이다.

he=jake이기 때문이 동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주어/동사/목적어/보어: 이것들은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문장의 필수성분이다. 각각 S, V, O, C로 표기하기도 한다. 문장의 성분이 어떻게 배열됐는지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으로 나눈다. 그 중 1형식 문장은 아까 설명했었던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리고 아까 well이라는 수식어도 언급을 했었는데, 수식어 역시 문장의 성분이지만 이는 꾸며주는 성질을 가진 문장성분으로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필수 문장성분은 아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성분은 꼭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어는 명사종류의 성질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는데, 명사종류 중에는 대명사, 명사 등이 있고, 이러한 대명사, 명사 등을 품사라고 부른다. 즉 각각에 문장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있는데, 그 문장성분안에는 딱 한 단어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어나 문장의 형식을 갖춘 말들도 들어갈 수 있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을 구], 두 단어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인 [구 중에서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목적어' 등과 같이 문장의 형식을 갖춘 것을 절]이라고 한다.